문 대통령, 기무사령관 전격 교체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마찰 빚은 이석구 사령관직 경질

非 육사출신 남영신 임명… 기무사 해체 후 재편성 지시

청와대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공석에서 마찰을 빚은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을 전격 경질하고, 비(非)육사 출신 새 사령관을 임명한 것은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의 갑작스러운 기무사령관 교체 발표는 이석구(육사41기) 사령관에 대한 사실상의 경질성 인사로 보인다.

이 사령관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무사 계엄 문건의 보고 과정을 두고 송 장관과 각을 세운 장본인이다.

당시 이 사령관은 계엄 문건 최초 보고 당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송 장관에게 20분간 대면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5분가량 보고를 받았다는 송 장관과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 장면이 고스란히 생중계되면서 군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송 장관에 대한 리더십도 크게 손상됐다.

이 사령관은 기무사 혁신이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계엄 문건 파문이 터진 뒤 송 장관과 불협화음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지난해 7월 기무사 수장 자리에 오른지 1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송 장관은 기무사 개혁을 국방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여길 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령관과 마찰을 빚자 청와대에 해임을 건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최고통수권자 인사권 행사한 것"이라며 "새롭게 기무사가 개혁이 되야되는 상황에서 그에 맞는 새로운 임명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무사는 1977년 보안사 창설 이래 임재문(학군 3기), 김종태(육군3사 6기) 전 사령관을 제외하면 모두 육사 출신 사령관을 배출했을 만큼 순혈주의가 짙은 곳이다.

육사 출신들이 득세한 기무사에서 같은 육사 출신인 이 사령관 역시 현 정부의 개혁 의지를 제대로 실행하기 힘들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비육사 출신인 남영신 사령관을 앉힌 것도 기무사를 완전 해체하고 재편성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령부를 만드는 임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 산하 자문기구인 기무사 개혁위원회(개혁TF)의 개혁 권고안을 즉각 보고받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해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송 장관이 다음주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휴가 중에 사령관 교체를 서두르고 개혁 방향을 직접 설정한 것만 봐도 기무사 개혁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박훈기 홍보담당관

이동민 청문감사관

임종명 정보화장비과장

임상준 정보과장

김광호 보안과장

최원석 생활안전과장

안상엽 군산서장

최홍범 남원서장

송승현 김제서장

임성재 부안서장

박주현 임실서장

경찰청, 총경급 전보인사 단행… 전북청, 11명 대상 포함

경찰청이 지난 3일 총경급 간부 245명에 대한 6일자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청에서는 11자리가 바뀐다. 전출과 대기발령까지 합칠 경우 13명이 인사대상에 포함된다.

다음은 총경 전보인사 명단이다.

▲전북경찰청 홍보담당관 박훈기 ▲전북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이동민 ▲전북경찰청 정보화장비과장 직무대리 임종명 ▲전북경찰청 정보과장 임상준 ▲전북경찰청 보안과장 김광호 ▲전북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최원석 ▲군산경찰서장 안상엽 ▲남원경찰서장 최홍범 ▲김제경찰서장 송승현 ▲부안경찰서장 임성재 ▲임실경찰서장 박주현 /송효철 기자

지선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 고발

군산 선거관리위원회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군산시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전북도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C씨를 지난 1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4000만원)에서 1200여만원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 도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C씨는 선거비용제한액(4천800만원)에서 300여만원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가 있다. 한편 후보자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한 혐의도 포함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8조제1항에,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6조제1항에 위반된다.

전북선관위는 정치자금에 대한 허위 보고와 선거비용 과다 보전청구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북도, 재난취약 10개분야 안전관리 강화

야영장·청소년수련·물놀이시설·매개 감염병 등 이달 말까지

전북도는 김송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여름철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점검반을 구성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나기를 위해 여름철 재난취약분야 10개를 선정해 올 6월부터 8월말까지 집중 안전관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올여름은 지난해에 비해 유난히 뜨겁고, 또한 감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도민들의 상시 안전강화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재난취약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여름 휴가철 피서객의 급증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극성수기 기간인 8월 중순까지는 도 안전관리자문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산업안전보건공단, 전기 및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 안전전문가를 통한 합동표본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더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집중 관리분야는 ▲야영장 및 유원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물놀이시설 ▲수상레저시설 ▲50억 이상 대형공사장 ▲해수욕장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교통안전 ▲식중독 안전관리 ▲매개(모기·진드기 등) 감염병 분야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합동표본점검은 재난취약 6개 분야 45개소를 대상으로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하여 피서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대형공사장 등에 대해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개별법에 따른 시설기준 준수여부와 놀이시설 안전수칙 및 안내표지판 정비사항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현지시정 가능 한 것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안전상 문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며,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 제도개선 사항과 우수사례 발굴도 함께 진행한다.

8월말까지 해당 분야별 관리부서 및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북도에서도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현장행정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를 통한 민관합동 표본점검을 통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서 여름 휴가철 피서객 및 도민들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난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계절별·시기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위험 및 취약요소에 대해 사전에 발굴·조치함은 물론, 향후 안전하고 건강한 전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 오늘·14일·16일 '사랑의 헌혈운동'

전주시가 각급학교의 여름방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혈액수급을 극복하기 위한 사랑의 헌혈운동을 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송준상)는 여름철 혈액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오는 6일, 14일, 16일 3일에 걸쳐 전주시청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운동'을 한다.

이번 '사랑의 헌혈운동'은 전체 헌혈자 중 75% 이상인 학생들이 방학기간에는 수혈용 혈액 확보가 어려워, 이를 극복하는데 동참하자는 취지로 6일 전주시청을 시작으로 14일 덕진구청, 16일 완산구청 청사 앞에서 각각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시민들도 신분증을 지참한 후 전날 금주 또는 과로를 피하고, 7시간 이상 숙면과 당일 아침 식사 후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전국조합장선거 대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전북선관위, 13일부터 공개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활동 등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8월 13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27명으로 도선관위 2명, 김제시선관위 3명, 기타 구·시·군선관위는 1~2명이며 지원 자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라면 응모가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로 소정의 지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근무를 희망하는 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친 후 8월 23일까지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은 2018년 9월 3일부터 2019년 3월 29일까지 근무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과 지원서류 양식은 도선관위 홈페이지(http://jb.nec.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도선관위 지도과(☎239-2330) 또는 각 구·시·군선관위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조합장선거를 위한 공정선거지원단 모집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